

(2017. 4. 22 시행) 국회사무처 8급 기출문제 [경제학(가형) 해설]

[김영식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1. 답 ⑤

	소득효과	대체효과(차이 없음)
저축자	이자율상승 → 이자수입증가 → 소득증가 → 현재소비증가	이자율상승 →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상승 → 현재소비감소 (저축증가)

대체효과는 소비자가 현재 저축자인지 차입자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현재소비를 줄이고 미래소비를 증가시킨다. 결국 이자율 상승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최종적인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저축자(소득효과 > 대체효과): 이자율상승 → 현재소비증가(저축감소)
- 2) 저축자(소득효과 < 대체효과): 이자율상승 → 현재소비감소(저축증가), 미래소비증가
따라서 이자율상승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2. 답 ④

묶어팔기가 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두 품목의 가격이 고객에 대해 역의 관계가 있어야하므로 수영복과 샌들이 되며 이 때 최대수입은 고객(㉠)=400+150=550이므로 고객 ㉡도 550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수입은 1100이다.

3. 답 ④

시장수요곡선은 $P=20-Q$, 한계비용곡선은 총비용을 미분한 $MC=4$ 이다.

특허기간은 독점을 의미하므로 이 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 에서 시장수요곡선이 $P=20-Q$ 이므로 $MR=20-2Q$ 이다.

따라서, $MR=MC \Rightarrow 20-2Q=4$ 그러므로 $Q=8$

특허가 소멸되면 완전경쟁시장이 되므로 $P=MC$ 에 의해 $20-Q = 4$ 그러므로 $Q=16$

4. 답 ⑤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의 장기균형은 장기평균비용 극소값에서 이루어지므로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평균비용곡선식을 미분하면 $-1 + \frac{1}{50}q = 0 \Rightarrow q = 50$

이 때 장기균형가격은 평균비용식에 대입하면 $AC(50) = 40 - 50 + \frac{50^2}{100} = -10 + 25 = 15$

시장전체 생산량은 시장전체 수요곡선에 $P=15$ 를 대입하면 $Q=25,000-15,000=10,000$

따라서, 기업 수는 시장전체 생산량 10,000을 개별기업 생산량 50으로 나누면 200개이다.

5. 답 ⑤

❖ 효용함수가 $U = A\sqrt{X \cdot Y}$ 인 경우 수요함수의 성질

2017. 기출문제 해설

- 1) 수요함수는 $X = \frac{1}{2} \cdot \frac{M}{P_X}$, $Y = \frac{1}{2} \cdot \frac{M}{P_Y}$ 이다.
- 2) X재에 대한 수요는 Y재와는 독립적이다. 즉, 두 재화는 서로 독립재이다. ⇒ 지문 ㉠
- 3) X, Y재 두 수요곡선은 모두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갖는다. ⇒ 지문 ㉡
- 4) 각 재화의 수요는 소득의 변화율과 같이 변하므로 소득탄력도가 모두 1이다. ⇒ 지문 ㉢
따라서 소득소비곡선(ICC)과 앵겔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 5) 위의 수요함수에서 $P_X X = \frac{M}{2}$ 이 유도된다.

이는 각 재화의 지출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항상 소득의 절반으로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 지문 ㉣

- 6) 3)와 4)에 의해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따라서 가격소비곡선(PCC)은 수평선이다.

6. 답 ㉢

		기업 B	
		Q=2	Q=3
기업 A	Q=2	(10, 12)	(8, 10)
	Q=3	(12, 8)	(6, 6)

기업 A가 Q=2일 때 이윤은 10또는 8이고 Q=3일 때 이윤은 12또는 6이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기업 B가 Q=2일 때 이윤은 12또는 8이고 Q=3일 때 이윤은 10또는 6이므로 Q=2일 때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기업 B가 Q=2일 때 기업 A는 Q=3가 유리하므로 내쉬균형은 (12, 8)이 된다.
 옳은 것은 ㉠과 ㉡이다.

7. 답 ㉢

먼저 두 기업이 모두 추정자라 가정하는 구르노모형을 분석하면 1기업의 이윤함수는 한계비용이 0이므로

$$\Pi_1 = PQ_1 = 50Q_1 - Q_1^2 - Q_1Q_2$$

이윤극대화조건에 의해 미분하면

$$\frac{d\Pi}{dQ_1} = 50 - 2Q_1 - Q_2 = 0 \text{ 따라서 } Q_1 = \frac{50 - Q_2}{2} \text{ 이고}$$

같은 방법으로 $Q_2 = \frac{50 - Q_1}{2}$ 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슈타겔버그 모형에서 1기업이 선도자이고 2기업이 추정자이면 2기업의 생산량은

$$Q_2 = \frac{50 - Q_1}{2} \text{ 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1기업의 이윤을 구하면}$$

$$\Pi_1 = PQ_1 = 50Q_1 - Q_1^2 - Q_1Q_2 = 50Q_1 - Q_1^2 - Q_1 \times \frac{50 - Q_1}{2} = 25Q_1 - \frac{1}{2}Q_1^2$$

이윤극대화조건에 의해 미분하면

$$\frac{d\Pi}{dQ_1} = 25 - Q_1 = 0 \text{ 따라서 } Q_1 = 25 \text{ 이고 } Q_2 = \frac{50 - Q_1}{2} = 12.5 \text{ 이므로 시장거래량은 } 37.5$$

이 때 시장가격은 $P = 50 - 25 - 12.5 = 12.5$ 이다.

한편 동일한 가격에 1기업이 생산량이 2배이므로 이윤도 2배이다.

따라서 ㉠, ㉡, ㉢이 옳다.

8. 답 ④

수요곡선은 $P = 150 - \frac{5}{2}Q$, 사적한계비용곡선이 공급곡선이므로 $P = \frac{5}{2}Q$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사적한계비용곡선의 2배이므로 $P = 5Q$

따라서 ㉠의 경우 $150 - \frac{5}{2}Q = \frac{5}{2}Q \Rightarrow 5Q = 150 \therefore Q = 30$

㉡의 경우 $150 - \frac{5}{2}Q = 5Q \Rightarrow \frac{15}{2}Q = 150 \therefore Q = 20$

9. 답 ⑤

채용된 후에 발생하는 비대칭 정보 문제이므로 도덕적해이에 관한 것을 고른다.

㉠과 ㉡은 역선택에 대한 것이므로 옳은 것은 ㉢, ㉣, ㉤이다.

10. 답 ①

경유자동차의 구매수요의 경유가격 탄력성이 3이므로 경유가격을 10%인상하면 경유자동차의 구매수요량은 30% 감소한다.

정부의 목표는 경유자동차의 구매수요를 20%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휘발유가격의 상승을 통하여 구매수요를 10%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경유자동차의 구매수요의 휘발유가격 탄력성이 2이므로 휘발유가격을 5% 인상하면 경유자동차의 구매수요가 10%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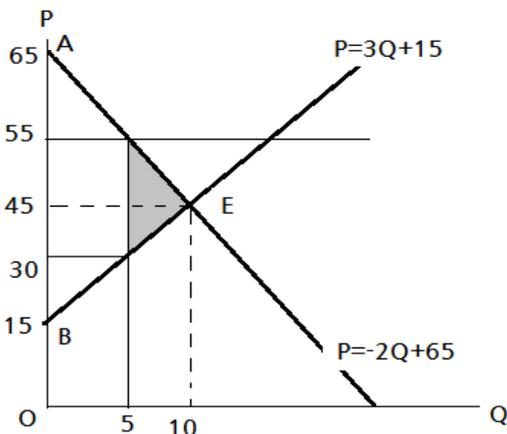
11. 답 ④

수요곡선은 $Q = -\frac{1}{2}P + \frac{65}{2} \Rightarrow P = -2Q + 65$

공급곡선은 $Q = \frac{1}{3}P - 5 \Rightarrow P = 3Q + 15$

균형을 구하면 $-2Q + 65 = 3Q + 15 \Rightarrow Q = 10, P = 45$

따라서 정부통제가격 55는 균형가격보다 높으므로 가격하한제가 되고 가격상한제는 모든 것이 변화가 없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고 따라서 가격상한제시 총잉여는 $\triangle AEB (=250)$ 이고 가격하한제의 총잉여는 $\triangle AEB$ 에서 색칠한 면적을 제한 부분(=187.5)이다.



12.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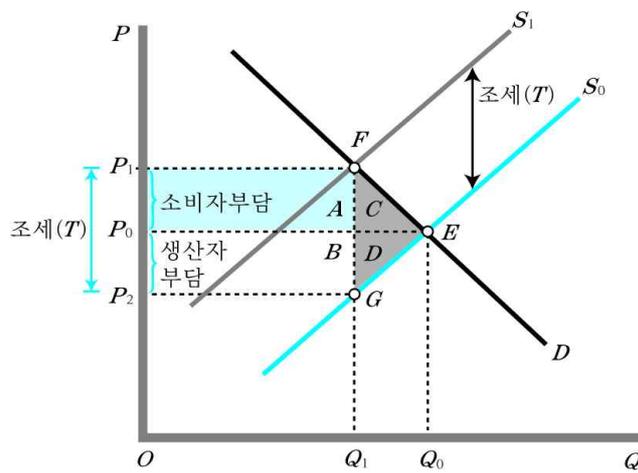
㉠ 탄력도의 정의에 의하여 옳은 설명이다.

㉡ 5번 문제 설명에 의해, 각 재화의 지출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항상 소득이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과 ㉣은 다음의 표에 의해 옳지 않다.

	$\epsilon_d > 1$ 이면 $\frac{\Delta P}{P} < \frac{\Delta Q}{Q}$	$\epsilon_d < 1$ 이면 $\frac{\Delta P}{P} > \frac{\Delta Q}{Q}$
가격 상승 시	㉠ 가격상승률 < 수요량 감소율 → 소비자 지출액은 감소	㉢ 가격상승률 > 수요량 감소율 → 소비자 지출액은 증가
가격 하락 시	㉡ 가격하락률 < 수요량 증가율 → 소비자 지출액은 증가	㉣ 가격하락률 > 수요량 증가율 → 소비자 지출액은 감소

13.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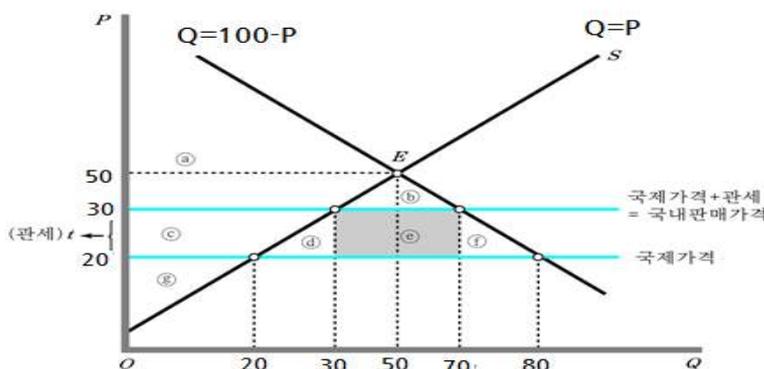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조세부과효과는 동일하며 이 때, 후생손실은 C+D가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조세가 부과되는 공급곡선은 상방으로 T만큼 평행이동하므로 공급 곡선을 $Q = 100 + 3(P - T)$ 라 하고 수요곡선과의 교점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후생손실은 C+D의 면적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 이가 135가 되는 T값을 구한다.

실제는 보기의 중앙값인 $T=10$ 으로 문제를 적용한 후 대략 조정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하면 $T=15$ 가 구해진다.

14. 답 ②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2017. 기출문제 해설

생산자 잉여 변화량은 ㉠이므로 $0.5 \times (20+30) \times 10 = 250$ 증가
 후생손실은 ㉡+㉢ 만큼 감소하므로 $0.5 \times 10 \times 10 + 0.5 \times 10 \times 10 = 100$

15. 답 ㉠

㉠ 불리한 공급충격을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총공급곡선은 변하지 않고 총수요곡선만 이동하므로 단기균형에서 $Y < 1,000$ 이어야 한다.

16. 답 ㉢

정부지출승수는 $\frac{dY_E}{dG} = \frac{1}{1-c} = \frac{1}{1-0.75} = 4$ 이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ΔG 만큼 늘리면 IS곡선은 $4\Delta G$ 만큼 우측으로 이동하고

조세승수는 $\frac{dY_E}{dT} = \frac{-c}{1-c} = \frac{-0.75}{1-0.75} = -3$ 이므로

조세를 ΔG 만큼 늘리면 $3\Delta G$ 만큼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IS곡선은 $4\Delta G - 3\Delta G$ 만큼 우측으로 이동하고 화폐 공급량을 ΔG 만큼 줄이면 LM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17. 답 ㉡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면

$$Y = 50 + 0.75(Y - 200 - 0.25Y) + 150 + 250$$

$$\Rightarrow Y - 0.75 \times 0.75Y = 50 + 250 = 300 \quad \therefore Y \approx 682 < 750 \text{이므로 경기침체이다.}$$

한계조세율을 t 라 하고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면

$$Y = 50 + 0.75(Y - 200 - tY) + 150 + 250 \text{에서 } Y = 750 \text{이 되는 } t \text{를 구하면}$$

$t = 0.2$ 가 구해지므로 5%p 감소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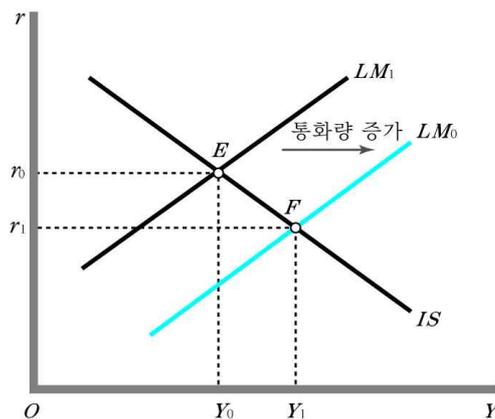
18. 답 ㉢

AK모형에서는 저축률이 성장률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정부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19. 답 ㉡

금융정책의 효과



㉡ 최초의 균형 E점(Y_0, r_0)에서

통화량 증가 → LM 곡선 우측이동 → 이자율이 하락하고 ($r_0 \rightarrow r_1$) 국민소득이 증가 ($Y_0 \rightarrow Y_1$)

- 1) LM곡선이 급경사일수록 (화폐의 이자율 탄력성:h이 작을수록)
 -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정책효과 크다.
- 2) IS곡선이 완만할수록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d 클수록)
 -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정책효과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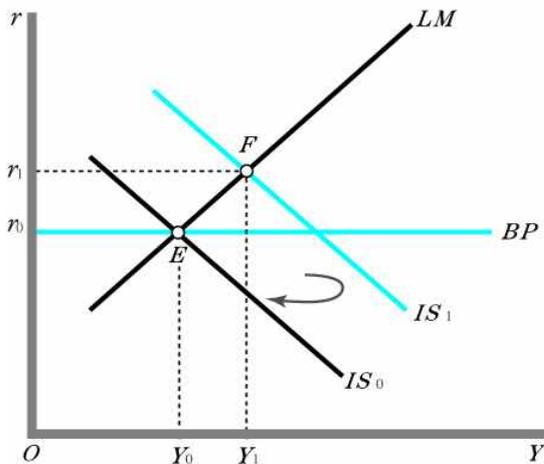
20. 답 ③

< 총공급곡선의 이동 >

- (1) 노동공급증가의 영향
 - 인구증가, 노동의욕 상승, 근로소득세가 인하 → 노동공급이 증가 → 노동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
 - (2) 노동수요증가의 영향
 -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이 하락, 법인세 인하 등 → 노동수요 증가 → 노동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 (3) 생산함수의 이동영향
 - 기술진보나 자본이 증가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노동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 한편, 기업은 실질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고용이 증가하여 총공급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물가하락은 총수요곡선 위의 움직임이다.

21. 답 ④

- 변동환율제도에서의 재정정책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 개방소국) : BP곡선 수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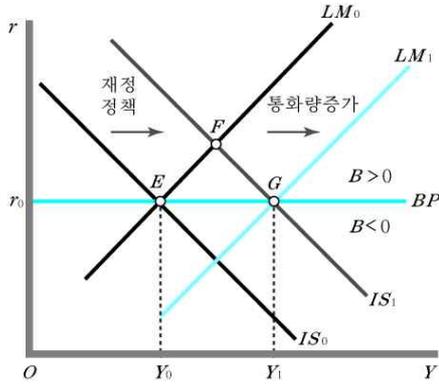


- ↳ 확대 재정정책
 - 최초의 균형점 $E (Y_0, r_0)$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IS_0 \rightarrow IS_1$)
 - 자본수지 흑자(BP곡선 상방) : F점
 - 외환공급증가, 환율하락(평가절상)
 - 수출감소, 수입증가(경상수지 적자)
 - BP곡선 좌측이동(변화 없음)
 - IS곡선 좌측이동($IS_1 \rightarrow IS_0$) : E점
 - (산출량 불변, 이자율 불변)
 - 효과무력

따라서 ㉠, ㉡, ㉢이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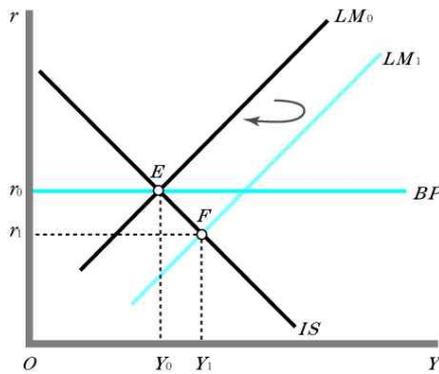
22. 답 ②

- 이 문제는 암묵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여야 답이 도출된다.
-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재정·금융정책(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 개방소국) : BP곡선 수평



↻ 확대 재정정책

- 최초의 균형점 $E(Y_0, r_0)$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IS_0 \rightarrow IS_1$)
- 국제수지 흑자 (BP곡선 상방) : F점 (즉, 이자율 상승 → 자본유입)
- 中央은행(달러매입) →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LM_0 \rightarrow LM_1$)
- 새로운 균형점 : G점(Y_1, r_0)
- 효과적 (산출량 증가, 이자율 불변)



↻ 확대 화폐금융정책

- 최초의 균형점 $E(Y_0, r_0)$
- 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LM_0 \rightarrow LM_1$)
- 국제수지 적자 (BP곡선 하방) : F점 (즉, 이자율 하락 → 자본유출)
- 中央은행(달러매각) → 통화량 감소
- LM곡선 좌측이동($LM_1 \rightarrow LM_0$)
- 새로운 균형점 : E점(Y_0, r_0)
- 효과무력 (산출량 불변, 이자율 불변)

23. 답 ①

19번 문제 풀이에서 금융정책은 LM곡선이 급경사일수록 (화폐의 이자율 탄력성:h이 작을수록) →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정책효과 크다.

따라서 ① 화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LM곡선이 수평선이 되어 금융정책효과는 전혀 없다.

24. 답 ⑤

GDP 에 포함되는 항목	GDP 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귀속임대료(자기집 사용료)	여가
자가소비 농산물(농부)	자가소비 농산물(도시의 텃밭)
파출부의 가사노동	주부의 가사노동
신규주택매입	기존주택매입
국방, 치안서비스(공공재)	상속, 증여
금년 생산했지만 판매되지 않은 재고	주식가격, 부동산가격변동
회사채이자	국공채이자
가계가 구입한 목재(최종생산물)	목수가 구입한 목재(중간생산물)

㉠ 정부의 보조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고자동차는 당해 연도 생산물이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25. 답 ③

	라스파이레스 방식 (Laspeyres price index: LPI)	파세 방식 (Paasch price index: PPI)
가중치	· 기준년도의 거래량(Q_0)을 가중치로 사용	· 비교년도의 거래량(Q_t)을 가중치로 사용
가중치	$LPI = \frac{\sum P_t \cdot Q_0}{\sum P_0 \cdot Q_0} \times 100$ (P_t : 비교년도 물가, Q_0 : 기준년도 거래량)	$PPI = \frac{\sum P_t \cdot Q_t}{\sum P_0 \cdot Q_t} \times 100$ (P_0 : 기준년도 물가, Q_t : 비교년도 거래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이 비교적 간편하다. · 일반적(물가상승 때)으로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 신상품을 물가에 반영하지 못한다. ·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로의 대체소비를 반영하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년도의 가중치와 대상품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다. · 비교적 정확한 물가지수를 나타낸다.
사용지수	·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 GDP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 물가지수 추계범위

	수입품 가격	주택임대료	신규주택가격	기존주택가격
생산자물가지수(PPI)	×	×	×	×
소비자물가지수(CPI)	○	○	×	×
GDP 디플레이터	×	○	○	×

따라서 옳은 것은 ㉠, ㉡, ㉢이다.